

사 설

종교적 아집의 '관람료 반대'

독일의 종교학자 바르(J. Wach)는 "모든 종교를 알아야만 비로소 하나의 종교를 제대로 알 수 있다"고 역설한 바 있다. 현재 각자가 신봉하고 있는 종교의 교리를 스스로는 자기끼리만 통하는 진리가 아니고 어느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통하는 보편적인 가치라고 믿고 싶겠지만 사실상 그것은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리고 다른 종교의 사상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세계의 지성들과 함께 우리 나라에서도 변신한 목사나 강원도 목사 등이 힘주어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종교간의 큰 갈등을 유발한 적 없는 평화의 나라 이 땅에서 좋지 못한 조정이 하나 둘 생겨나 뜻 있는 이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우리 나라의 국조 단군상을 부처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더니 이제는 원주 경찰서 경승실에 부처님 모시는 것을 시비하고, 기독교 모임을 만들어 우리나라의 귀한 문화유산인 사찰 문화재의 유지와 보수에 필요한 관람료를 받지 못하게

나서겠더니 과연 이들이 정말 대한민국 국민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알다시피 한국의 전통사찰은 관공 명승뿐이 아니다. 역대 조상님들과 불자들이 신명을 바쳐 지켜온 불교 수행처이며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이어가는 전통문화의 산실이기도 하다. 현재 남아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60% 이상이 불교문화재인 것은 불교가 민족사적 사명을 가지고 지켜왔기에 가능했다. 따라서 전통 사찰과 불교문화재는 불자 뿐 아니라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그 보존과 관리가 잘 되어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합당한 조치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도외시키고 종교적 아집과 잘못된 정보에 사로잡혀 종교간 갈등을 유발하는 일부 기독교인들은 민주화시대의 올바른 시민의 자격이 없으며, 평화와 안녕을 위해 앞장서야 할 종교인이 반목과 갈등을 조장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종교인이라 할 수 없다. 다종교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종교간 화합을 위해서는 다른 종교에 대한 인정과 이해가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다.

상설 행자교육원 설립 시급

조계종 제20기 행자교육이 9월 26일 직지사에서 회향, 234명의 새로운 출가 수행자가 탄생하였다. 기초교육을 통한 승가의 위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1991년 행자교육원을 개설, 10년에 걸쳐 4,697명을 배출하여 젊은 승가로써 한국 불교의 기초적 근간을 이루어가고 있다. 10년을 돌아보며 그 성과면에서 평가해 본다면 개 사찰에서 무질서하게 진행되었던 행자교육이 체계화되어 그 기틀이 다져지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3주라는 짧은 교육기간이지만 정제되고 일정한 교육과 고시를 통한 기초교육을 상당 수준으로 10년을 맞으면서 무엇보다도 상설 행자교육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본다. 지난 10년 간 꾸준히 희망하고 검토되고 있으나, 아직 미결 상태이며, 지금처럼 일시적 빌려쓰기식 행자교육원의 개설은 불안정한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 3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은 직지사를 비롯해 봉도사, 송광사 정도다. 이 중에도 시설이 부족하여 매년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상설행자교육원이 설립되면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교육 기간도 자연

될 수 있다. 적어도 행자교육기간이 출가사찰 및 본사에서 6개월, 행자교육원에서의 6개월로 1년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육전문가들의 견해다. 적어도 종교성직자는 의례와 승의가 제대로 갖추어져야 한다. 현재 3주간의 짧은 교육기간으로 의례, 승의, 기초교학 등을 습득한다는 것은 무리다.

그리고 교육 내용도 체계를 세워야 한다. 기초교육 기간 내에 예비승으로서의 기본적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계율과 불교 기초교학의 교육이 실천수행과 관련되어 한층 내실 있는 교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교육을 준비하느라 교육인 관계자가 동분서주하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설행자교육원의 설립은 승가교육을 제 1 목표로 하는 제 1차적 중대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교수사와 승의사의 전문성을 갖춘 교육 및 연구인력의 양성과 확보도 시급한 과제다. 불교의 미래는 초발심하여 출가하는 이들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절감한다면 상설행자교육원 설립은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행자-강원-교직자 교육 일원화

조계종 제4기 교육원 위원회 발족

조계종 제4기 교육원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교육원은 교육원 위원회 교육위원장에 지오스님(해인사 강주), 역경위원장에 해남스님(승가대학원장)을 새로 임명하는 등 교체편찬위원장 무관스님(법계사 주지·유입)을 비롯한 3인 위원장에 위원회별로 각 9인씩 모두 27명의 교육원위원회 위원을 확정하고 9월 27일 오전 총무원 1층 강당에서 제4기 교육원 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번에 출범한 4기 교육원 위원회는 지난 3기까지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돼 온 것과는 달리 종단의 모든 교육문제를 총괄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또한 지금까지 행자교육위원회, 강원학

장회의, 전국교직자회의 등 각 기관별로 종단 교육현안이 논의되고 심의되던 체계에서 교육원 위원회가 이들 3개 기관의 역할을 총체적으로 아우르게 됨으로써 종단 교육행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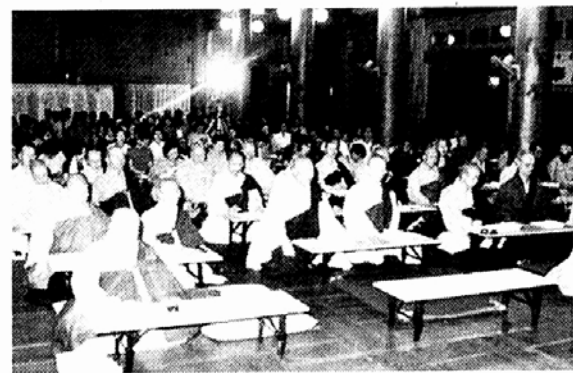
우선 교육위원회는 2002년도까지 교육 및 수행체계 정립, 교육기관 신·증설, 승랍별 교육목표 및 교정 수립 등 그동안 과제로 남아 있던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교체편찬위원회는 서장 등 사집교재 검인정, 화엄경 본문 교재 검인정, 치문 및 사교과목 검인정 원적 수립, 기초교육교재 개편 및 검인정 등의 작업을 진행한다. 또 역경위원회는 불학총서 제6권 간행, 역경 현황 진단 및 방향 모색, 역경 진흥사업 추진, 역경지원사업 다

변화 등의 과제를 풀어나가게 된다.

교육원 박용규 교육과장은 "지금까지는 행자교육위원회 등 각 기관별 시스템 확립에 주력하다보니 교육원 위원회에 힘이 실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교육원 위원회가 제 역할을 수행할 경우 종단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교육원은 이날 오후 교육원 회의실에서 교육원 회의를 열고 승랍별 연수체계 마련, 기본교육기관 정비 등 2002년도 사업을 심의하는 한편 2001학년도 국내외 장학승을 선발했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승은 서울대 1명, 동국대 15명 등 국내 16명과, 일본 6명 미국 5명 등 국외 18명을 합쳐 모두 34명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봉은사 禪의 정수 임제록 강설 9월24일부터 28일까지 봉은사 법당에서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스님을 강사로 초빙, 임제록 강좌를 열었다. 이번 임제록 강좌에는 5일간 1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봉은학림은 99년부터 화엄경 입법계품, 지장경, 달마행록 등의 강좌를 진행해왔다.

봉선사-의정부 사암련 북한산도로 대책위 출범

상임대표에 지섭스님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와 의정부불교사암연합회, 조계종 사회부, 불교환경연대, 의정부 운전불자회 등 불교단체들은 9월 26일 의정부포교원에서 '북한산국립공원 관동도로 저지 및 대안노선 건설 및 사찰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불교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봉선사 부주지 각원스님과 의정부사암련 연합회 회장 지섭스님(상임대표) 관련 인터뷰 4편을 공동대표로 선출하고 북한산국립공원 관동도로 반대 서명운동, 서울외곽고속순환도

로의 대안노선 채택을 위한 결의대회, 건설교통부 장관 및 국회건설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면담 등의 북한산국립공원 및 사찰수행환경 보전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한편 북한산국립공원을 관통하는 서울외곽고속순환도로와 관련된 민주당 이회창 의원과 이미경 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 조한천 의원(연동회) 이사도 한국도로공사와 건교부를 상대로 한 국감질의에서 '북한산 관동도로 재고하라'는 강도 높은 반대입장을 밝히고 북한산 관동노선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재경 기자

종범스님 승가대총장 복귀

학교조기정상화 기대

지난 7월 총장직을 사임하고 물러났던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스님이 복귀한다.

종범스님은 9월25일 조계종 총무원에서 총무원장 정대스님과 만나 총장직 복귀의사를 밝힌데 이어, 27일 중앙승가대를 방문하고 추석이 지난 10월8일부터 정상 출근기로 했다. 이로써 중앙승가대는 학교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정대스님과 종범스님의 면담에 배석했던 중앙승가대 교학처장 정목스님에 따르면 정대스님은 "학교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 스님이 계시어 차근차근 남은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고, 또 학교 구성원들도 스님의 복귀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며 총장직에 복귀해

줄 것을 요청했고, 종범스님은 "그렇게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종범스님은 28일 기자회견의 전화 통화에서 "학교로 돌아와 달라지는 학인들의 청을 뿌리칠 수가 없어 복귀를 결심했다"며 "학교 현안문제는 복귀해서 상황을 충분히 파악한 후 합리적인 방향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의 한 관계자는 "종범스님이 복귀함으로써 학교 위상이나 자율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그러나 학교 배석했던 중앙승가대 교학처장 정목스님에 따르면 정대스님은 '학교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 스님이 계시어 차근차근 남은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고, 또 학교 구성원들도 스님의 복귀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며 총장직에 복귀해

한명우 기자



조계종 20기 행자교육원 234명 수계

조계종 제 20기 행자교육원이 9월 26일 직지사에서 회향했다. (관련기사 3면)

원로의원 녹원스님, 교육원장 무비스님, 행자교육원장 법성스님(직지사 주지), 승의사, 교수사 등 행자교육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향식에서는 남행자 133명 여행자 101명 등 모두 234명의 행자가 교육을 수료하고 사미(니)계를 받았다.

이날 수계를 받은 행자들은 지난 9월 4일부터 3주간 입정으로 부처님 생애, 42장경, 기초교리, 작법, 사미율의 등 9개 과목에 대한 교과과정과 특강, 일보일배, 삼천

배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한명우 기자

中信會 11월17일 대의원 총회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9월20일 중앙신도회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신임 회장을 선출할 제3차 대의원총회 일정을 11월 17일로 확정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정인익 부회장을 선출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또 이달 17일까지 대의원 명부를 확정하고, 31일부터 11월2일까지 후보자 등록신청을 받는 등의 일정도 확정했다. 한명우 기자

대한불교 삼론종

제 2세 종정 석파당 전석봉 대종사 추대법회

귀의 삼보 하옵고 대한불교 삼론종 제2세 종정 추대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 하고자 합니다. 교계 원로 대덕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께서는 수회 동참 하시어 법석을 더욱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고 문 : 각화대종사 혜공대종사 진지마대종사

■ 자문위원 : 신수 향운 대안 대운 태봉 태관 자연 만해 오봉 법원 법진 지운 진봉 청봉 정봉 법진 대심 혜각 청허 지혜 선우 지해 지경 지겸

■ 동행위원장 : 석혜승

■ 집행위원장 : 석혜광

■ 동행위원 : 도경 지원 허부 달봉 해안 도연 서하 법작 지향 일선 보현 지율 지공 도희 혜광 도경 현우 성운 신수 덕암 성도 원보 월산 도우 법혜 팔봉 법선 운봉 혜관 해명 보은 법륜 지인 대운 지연 성관 회봉 도심 혜명 운봉 대안 우담 지암 해원 혜명 해인 해수 해연 무봉 혜각 성심 묘진 지법 도광 광연 일화 지동 성도 지호 혜정 의룡 혜월 성관 보연 성월 혜초 일행 보현 용선 청일 청호 지용 설운 성호 보명 성인 법인 태봉 벽담 지봉 문곡 청월 율타 법화 장복 법관 태서 치법 혜초 옥광 원각 해인 혜각 보원 혜장 성각 성현 해월 혜초 해인 명재 지학 지심 응진 석운 향담 정각 경수 벽파 토암 무상 다술 성담 법연 법신 성아 달봉 제호 석봉 의택 의천 의교 지원 법신 지호 해운 지형 법진 지암 해마 지월 성휘 보현 성각 지성 지관 혜성 원화 지후 법성 법준 지성 원명 정각 혜민 의송 지장 무성 묘심 덕운 역일 원담 법원 지공 연해 지화 지명 의탄 의학 지호 해담 지선일화 행도 혜정 해불 혜월 태관 인봉 덕송 의환 해일 해동 기산 법진 지산 선우 정현 청담 지낙 의광 묘연화 지해장 법장화 배사옥 자운행 보덕화 공덕행 평등원 보리심 자비행 자비심 법진화 무량각 대덕화 묘지심 보현화 선덕행 자비심 대명화 관음행 자비행 보운행 보현행 대덕화 보리심 진무상 보현심 진여심 김봉성 강행열 이태호 권영희 이광용 김미숙 광정웅 신상철 이의표 안명자 김순옥 유동호 조은천 박미숙 조월해 (무순)

■ 일 시 : 불기2545 (서기2001)년 10월 14일 (음력 8월 28일) 일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학의리 289번지 / 부석사

■ 연락처 : 02) 433-9780 (총무원) · 033) 333-7682 (부석사)